



東·亞·文·化·54

# 소학과 대학, 타율적 윤리와 자율적 윤리

박미라

1. 서론
2. 타율적 윤리, 자율적 윤리
3. 소학에서의 함양(涵養), 대학에서의 궁리(窮理)
4. 불완전한 앎과 부자연스러운 실천, 참된 앎과 자연스러운 실천
5. 결론



# 소학과 대학, 타율적 윤리와 자율적 윤리

박미라\*

## 1. 서론

주희는 ‘어렸을 때 소학을 익혀서 방심(放心)을 수렴하여 덕성을 함양하는 것은 이후 대학에서 의리를 살피 사업을 이룩해 나가는 것의 근본이 된다.’<sup>1)</sup>고 말하며 소학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의리를 살피고 사업을 이룩해 나가는’ 대학에서의 공부는 곧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위한 것이기에, 소학과 대학의 관계는 ‘도덕성의 함양과 완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sup>

필자 또한 소학과 대학의 관계는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주희가 ‘소학에서 도덕성을 함양하는 방법’과 ‘대학에

---

\* 공군사관학교 철학교관

1) 『대학후문』上:1-3, 不習之於小學, 則無以收其放心, 養其德性, 而爲大學之基本. 及其長也, 不進之於大學, 則無以察夫義理, 措諸事業, 而收小學之成功.

2) “‘바탕’을 마련하는 것에 소학교육의 초점이 있었다면 대학에서는 소학교육에서 구성된 ‘바탕’에 근거하여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며 동시에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장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소학과 대학의 교육은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는 일관적인 교육목표를 가지는 동시에 ‘기초마련’과 그 ‘완성’이라는 교육내용과 방법상의 차이를 갖는다.” 안은수, 「주자학 교육이론의 근간과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24』, 2005, 253쪽.

서 도덕성을 완성하는 방법'을 서로 다르게 제시하였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희는 소학에서는 기존의 규범대로(대표적으로 예절) 행동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성이 발달되기를 기대하였지만, 대학에서는 그동안 익혀왔던 규범들의 의미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성이 완성되기를 기대하였다.

소학과 대학의 공부 방법은 '기존 규범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대비적이다. 어린아이가 기존의 규범을 수용하여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이거나 정서적인 강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율적'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규범에 대한 비판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소 무리가 있지만, 소학에서의 윤리를 타율적인 것으로 대학에서의 윤리를 자율적인 것으로 대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결국 소학과 대학에서의 '도덕성의 함양과 완성'은 '타율적 윤리에서 자율적 윤리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주체성이 확립된다.

## 2. 타율적 윤리, 자율적 윤리

다음의 예문에서 소학과 대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천명(天命)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기 적합하지 않다.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단지 의리의 대강이나 눈앞의 일처리만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간혹 물 뿌리고 마당 쓸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다.<sup>3)</sup>

3) 『주자어류』 7:13, 天命, 非所以教小兒. 教小兒, 只說箇義理大概, 只眼前事. 或以灑掃應對之

소학은 일처리로서, 예컨대 임금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형을 섬기고 친구를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단지 아이들에게 그러한 법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대학은 그 일처리의 이치를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다.<sup>4)</sup>

첫 번째 예문에서 주희는 “천명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기 적합하지 않다”며 어린아이에게는 의리의 대강과 (물 뿌리고 마당 쓸고 손님을 맞이하는 등의) 눈앞의 일처리에 대하여 가르칠 것을 권유한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임금, 부모, 형, 친구 등의 여러 인간관계에서 ‘법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소학으로, 자신이 따르고 있는 법도의 이치를 밝히는 것을 대학으로 구분한다.

소학을 배우는 어린아이는 ‘왜 그렇게 해야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기 보다는 다만 소학에서 제시되는 행동 규범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의문의 답은 어린아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천명’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 성장해야만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소학은 기존의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소학에서의 윤리적 실천을 타율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천명’, ‘일처리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기존 규범에 대한 비판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그 규범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 규범의 내용은 같지만, 부모와 스승이 가르쳐주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의 공부가 목표하는 도덕적 완성, 즉 자율적 윤리이다.

그런데 소학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규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의 측

類作段子, 亦可.

4) 『주자어류』 7:7, 小學是事, 如事君, 事父, 事兄, 處友等事, 只是教他依此規矩做去. 大學是發明此事之理.

면이 아닌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실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를 과연 타율적인 윤리로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진래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규범을 따르는 것’을 칸트의 자율적인 도덕 경지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사람의 내심에는 종종 도덕 관념과 개인 이익이 모순 교착되는데, 개인은 내면적인 투쟁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도덕 규칙으로 변화시키거나 복종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에는 도덕 규범에 맞는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칸트 철학의 윤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노력 즉 ‘힘써 노력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도덕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이것이 자율적인 도덕 경지이다. 왜냐하면 칸트는 감정적인 색채의 ‘즐겁게 순리를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이는 봉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 법칙을 완전히 변형시켜 개인의 자각된 세계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곧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善)을 좋아하는 것을 마치 색(色)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고 악(惡)을 미워하는 것을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하여 완전히 내심에서 자각하여 도덕 실천에 종사하게 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도덕 실천을 감정적인 향수(享受)로 받아들여지게 한 것이다.<sup>5)</sup>

개인의 욕망은 종종 사회의 규범과 일치하지 않기에 치열한 노력을 통하여 욕망을 규범에 복종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의 도덕적 실천은 ‘힘써 노력하면서 행하는 것’이 되며, 진래는 이를 칸트의 ‘자율적 도덕 경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도덕률을 존중하여 이성의 힘으로 인욕을 억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봉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 법칙을 완전히 변형시켜 개인의 자각된 세계관으로 삼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 실천이 가능해진다.

5) 진래, 이종란 외 옮김, 『주희의 철학』, 2002, 예문서원, 376-377쪽.

도덕적으로 자각하면 ‘선(善)을 좋아하는 것을 마치 색(色)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고 악(惡)을 미워하는 것을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하게 된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자각한 개인에게 있어서 욕망과 규범의 대립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가 도덕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제 도덕적 실천은 자신의 욕구 및 감정과 일치되는 행위이므로 더 이상 이성으로써 인욕을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즐겁게 순리를 따를’ 뿐이다. 이는 진래에 의하면 칸트의 ‘자율적 도덕 경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즐겁게’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색채를 칸트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칸트는 천성이 동정심으로 가득차고 남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베푸는 친절은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남에게 동정심을 느끼기에는 스스로의 고뇌가 너무나 압도적인 사람이 오직 그것이 의무라는 생각에서 아무런 감격도 느낌도 없이 남을 돕는 것을 도덕적인 행위로 평가하였다.<sup>6)</sup> 따라서 오직 규범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욕망을 억누르는 행위를 칸트의 ‘자율적 도덕 경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진래의 견해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어떤 이유로 규범을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칸트의 도덕률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성의 비판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이다.<sup>7)</sup> 예컨대 ‘값을 가망이 없는데도 값값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가 도덕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지킬 의사도 가능성도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약속이 더 이상 약속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거짓말 약속’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도덕률로 삼을 수 없다.)<sup>8)</sup>

6)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2009, 118쪽.

7) 위의 책, 134쪽.

이처럼 이성의 비판 과정을 거친 도덕물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힘써 노력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칸트의 ‘자율적 도덕 경지’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자각 이전의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면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자율적 도덕 경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성의 비판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학에서의 실천이 규범 자체에 대한 비판적 숙고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실천’의 측면이 있더라도 ‘자율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3. 소학에서의 함양(涵養), 대학에서의 궁리(窮理)

소학 공부를 통해 어린아이가 (쇄소옹대 등의) 소소한 일처리에 능숙해지고 여러 인간관계를 무리 없게 소화해 낼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린아이는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주희의 관점에서 볼 때, 소학 공부의 가장 의미 있는 효과는 ‘기존 규범의 수용’이라기보다는 ‘내면의 함양’이다.

선생께서 서원에 오셔서 『소학』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선현의 말은 반드시 진실로 몸소 실천하고 마음속 깊이 느껴야 비로소 효과가 있다. 단지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sup>9)</sup>

옛 사람들은 소학에서 아이들에게 일처리를 가르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8) 위의 책, 128쪽.

9) 『주자어류』 7:20, 先生下學, 見說小學, 曰, “前賢之言, 須是真箇躬行佩服, 方始有功. 不可只如此說過, 不濟事.”



함양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좋아지게 하였다.<sup>10)</sup>

첫 번째 예문에서 주희는 『소학』에 적혀있는 선현의 말을 입으로만 따라 외울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천이 마음에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어린 아이가 일처리를 배움으로써, 그 마음이 함양되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좋아진다고 말한다. 이처럼 주희는 무비판적으로라도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면, 이것이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이 긍정적인 영향이란 곧 진실함과 경건함의 함양이다.

옛 사람들은 소학에서 아이들의 진실함과 경건함을 함양시켜서 선한 단서가 드러나게 하였다.<sup>11)</sup>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대개 단지 일상에 항상 행하는 효제충신을 말했다. 사람이 능히 이 위에서 해가면 마음의 어지러움은(放棄) 저절로 수렴되고 성(性)의 혼탁함도 저절로 밝게 드러난다. 심성(心性) 등의 글자는 자사맹자에 이르러서야 자세하게 말해졌다.<sup>12)</sup>

소학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면 진실함과 경건함이 함양되고 이로 인해 선한 단서가 드러난다. ‘선한 단서가 드러난다’는 말로부터 우리는 소학의 가르침이 ‘인간의 선함(性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소학의 내용은 ‘단지 일상에서 항상 행하는 효제충신’인데, (효제충신의 정신을 담은) 일상적인 규범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내면의 긍

10) 『주자어류』 7:9, 古人小學教之以事, 便自養得他心, 不知不覺自好了.

11) 『주자어류』 7:4, 古人小學養得小兒子誠敬善端發見了.

12) 『주자어류』 8:7, 聖人教人, 大概只是說孝弟忠信用常行底話. 人能就上面做將去, 則心之放者自收, 性之昏者自著. 如心·性等字, 到子思孟子方說得詳.

정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규범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본성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규범을 실천하는 것의 시작은 비록 무비판적인 수용에 의한 것이었을 지라도 반복되는 실천으로 인해 내면의 도덕성이 향상된다. 이제 소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사회성이 있고 내면적으로도 진실하다. 그렇다면 소학 공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소학 교육을 통하여 규범을 수용하고 이로부터 내면이 함양되어도, 자신이 따르는 규범이 ‘성선’과 ‘천명’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타율적인 윤리에 머무르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자아를 확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주희는 도덕적 실천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비판적 숙고 과정인 궁리(窮理)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증택지가 물었다. “먼저 함양하여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치가) 밝아집니다.” 답하였다. “또한 반드시 이치를 궁구하여야 한다. 함양과 궁리라는 두 가지 공부 중 어느 하나도 없앨 수 없으니, 마치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예컨대 사마온공은 단지 행하기만 했지, 치지(致知)의 공부가 없었다.”<sup>13)</sup>

아마도 증택지는 효제충신의 정신을 담은 일상적인 규범을 실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효제충신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함양하여 시간이 흐르면 (이치가) 저절로 밝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주희는 ‘기존 규범의 묵수와 이로 인해 달성되는 내면의 함양 및 앎의 향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이치를 궁구하는 것(궁리)’이 반

13) 『주자어류』 9:16, 擇之間, “且涵養去, 久之自明。”曰, “亦須窮理。涵養窮索, 二者不可廢一, 如車兩輪, 如鳥兩翼。如溫公, 只任行將去, 無致知一段。”

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희는 함양과 공리를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로 비유하여 둘 다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천과 이치 탐구는 서로 성격이 다르기에 이들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사람은 공부를 해야 비로소 의심이 생긴다. 처음 공부할 때는 하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다시 다른 하나의 일이 가로막아서 곧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가령 경건함에 머물고(居敬) 이치를 궁구하는(窮理) 두 가지 일은 서로 가로막는다. 거경은 마음에 거두어들여서 붙잡는 방법이며, 공리는 미루어 살펴서 궁구하는 방법이다. 그 두 가지 일은 서로 방해한다. 그러나 익숙해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 가로막지 않는다.<sup>14)</sup>

‘경건함에 머무는 것(거경)’이 기존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치를 궁구하는 것(공리)’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공리는 기존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규범에 대하여 검토하는 작업이며 따라서 이를 ‘의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거경과 공리는 서로를 가로막고 방해한다.

거경과 공리를 함께 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든 작업일 수 있으나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이들이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일은 없다. 공리를 통해 도달하는 결론의 내용이 기존 규범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규범의 위상이 달라질 뿐이다. 나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규범은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자율적 윤리가 된다. 대학에서의 공리 공부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14) 『주자어류』 9:19, 人須做工夫, 方有疑. 初做工夫時, 欲做此一事, 又礙彼一事, 便沒理會處. 只如居敬窮理兩事便相礙. 居敬是箇收斂執持底道理, 窮理是箇推尋究竟底道理. 只此二者, 便是相妨. 若是熟時, 則自不相礙矣.

#### 4. 불완전한 앎과 부자연스러운 실천, 참된 앎과 자연스러운 실천

주희가 공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었다. “반드시 함양하기를 심체에 다하지 않은 곳이 없게 해야만 비로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앎이 비록 지극하더라도 그 실행은 끝내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하였다. “단지 앎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반만 실천했다면, 곧 그는 단지 반만 아는 것이니, 견식이 그저 그 정도에 그칠 정도로만 아는 것이다. 도둑질에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사람이 곧 도둑질하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니 도둑질의 불선함을 참답게 아는 것(眞知)이다.”<sup>15)</sup>

실천력 부족의 원인을 함양의 불완전에서 찾는 제자에게 주희는 ‘다만 앎이 부족해서일 뿐’이라고 답한다. 이어서 ‘반만 실천하는 이유는 반만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주희가 앎과 실천을 비례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안다면 완전히 실천할 수 있다’는 말 또한 가능하다. 이 완전히 아는 것이 바로 참다운 앎, 즉 ‘진지(眞知)’이다.

진지가 완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호오(好惡)라는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앎과 호오와 실천은 비례적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도둑질이 악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이고 둘째, 사람들은 본래 (선한

15) 『주자어류』 18:5, 問, “須是涵養到心體無不盡處, 方善. 不然知之雖至, 行之終恐不盡也.” 曰, “只爲知不至. 今人行到五分, 便是它只知得五分, 見識只識到那地位. 譬諸穿窬, 稍是箇人, 便不肯做, 蓋眞知穿窬之不善也.”

일은 좋아하고) 악한 일은 싫어하기 때문이고, 셋째, (좋아하는 일은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일은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본디 선하기에, 이치를 따라 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그 앎이 지극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이를 하려고 하기에 그 어려움을 고생으로 느끼게 되고 따라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된다. 앎이 지극하면 이치를 따라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sup>16)</sup>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앎은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도가 범죄로 간주되는 사회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물건을 훔치고 싶지만, 그로 인한 처벌을 생각하면 참아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다. 무엇이든 억지로 하면 괴롭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일차적으로는 절도를 금지하는 현행 규범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선한 본성과 현행 규범이 일치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주희는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실에서의 도덕적 실천은 대다수가 불완전하다. 도덕 수양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 이를테면 성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선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과 ‘완전히 아는 것’ 사이 어디엔가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16) 『대학훈문』下:2-1, 夫人之性, 本無不善, 循理而行, 宜無難者. 惟其知之不至, 而但欲以力爲之, 是以苦其難而不知其樂耳. 知之而至, 則循理爲樂, 不循理爲不樂.

단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절실하게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일 뿐이다. 예컨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막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또한 좋지 않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 뒤쪽에서 당기는 듯하니, 이것은 단지 지식이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7)</sup>

‘좋은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엇이 선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이 또한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버린다. 위 예문에서 주희는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도덕적 실패’의 원인을 ‘단지 지식이 절실하지 못한 것’에서 찾는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에서는 도덕적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소인들은 남이 보지 않는 그윽한 곳에서는 실로 불선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다가도 겉으로는 착한 척 꾸며대면서 스스로 이를 숨기려고 든다. 이는 결코 선악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참으로 좋아하고 미워할 줄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혼자만이 아는 마음을 삼가지 못하여, 구차스럽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짝을 없애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다.<sup>18)</sup>

소인은 혼자 있을 때에는 불선한 행위를 하다가도 타인 앞에서는 이를 숨기려 든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선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불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역시 선악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

17) 『주자어류』 9:40, 只爭箇知與不知, 爭箇知得切與不切. 且如人要做好事, 到得見不好事, 也似乎可做. 方要做好事, 又似乎有箇做不好事底心從後面牽轉去, 這只是知不切.

18) 『대학혹문』 下5, 若彼小人, 幽隱之間, 實爲不善, 而猶欲外托於善以自蓋, 則亦不可謂其全然不知善惡之所在, 但以不知其眞可好惡, 而又不能謹之於獨, 以禁止其苟且自欺之萌.

의 도덕적 실패는 그의 앎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예문에서 주희는 소인이 실패한 원인을 ‘참으로 좋아하고 미워할 줄 알지 못한 것’에서 찾는다. 이는 이제까지의 논의와는 사뭇 다르다. 도덕적 실패의 원인을 앎의 불완전함이 아닌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르면 다시 성의를 말하여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윽한 곳, 은미하게 깊은 곳에서 삼가, 구차스럽거나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이 싹트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예컨대 선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마음속으로부터 바깥에까지 조금이라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없도록 하고, 악을 미워한다면 반드시 마음속으로부터 바깥에까지 털끝만큼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다.<sup>19)</sup>

상식적으로 볼 때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희는 ‘타인이 없는 곳에서도 참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것’을 주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자신의 감정을 돌이켜서 반성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차적으로 발생한 감정이 선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찬 것이 아니더라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완전한 선의지로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호오’라는 도덕적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서라도 ‘참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으로써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의식적인 노력이 바로 뜻을 진실하게

---

19) 『대학훈문』 下:5, 至此而復進之以必誠其意之說焉, 則又欲其謹之於幽獨隱微之奧, 以禁止其苟且自欺之萌. 而凡其心之所發, 如曰好善, 則必由中及外, 無一毫之不好也. 如曰惡惡, 則必由中及外, 無一毫之不惡也.

하는 ‘성의(誠意)’이다.

이치를 다 궁구하지 못한 까닭에 그 앞에는 미진한 바 있고, 앞이 미진한 까닭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또한 반드시 의리가 순수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물욕의 사사로움이 뒤섞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곧 성의를 할 수 없고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몸을 닦을 수 없음으로써 천하 국가까지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이유이다.<sup>20)</sup>

참된 앞을 열어주지 못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실제에 이를 수 없기에 반드시 ‘그 뜻을 진실하게 하려면 먼저 그 앞을 다하라’ 하였고, 또한 ‘앞이 지극한 뒤에 뜻이 진실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앞이 지극하다고 믿고 마음대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을 진실하게 하라’라고 말한 것이다.<sup>21)</sup>

선악에 대하여 완전히 안다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즉, 자연스럽게 뜻이 진실해진다. 그렇다면 진지와 성의는 비례 관계이다. 따라서 첫 번째 예문에서는 ‘이치를 다 궁구하지 못한 까닭에 성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두 번째 예문에서도 “그 뜻을 진실하게 하려면 먼저 그 앞을 다하라”, “앞이 지극한 뒤에 뜻이 진실하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그 뜻을 진실하게 하라”라는 의식적인 노력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

앞이 지극해지려면 기존의 규범을 검토하는 작업인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궁리하는 과정에서 소학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이

20) 『대학후문』 下:2-2, 理有未窮, 故其知有不盡, 知有不盡, 則其心之所發, 必不能純於義理, 而無雜乎物欲之私. 此其所以意有不誠, 心有不正, 身有不修, 而天下國家不可得而治也.

21) 『대학후문』 下:5, 然非有以開其知識之眞, 則不能有以致其好惡之實, 故必曰‘欲誠其意者, 先致其知.’ 又曰‘知致而后意誠.’ 然猶不敢恃其知之已至, 而聽其所自爲也, 故又曰‘必誠其意.



에 따라 기존 규범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위 두 번째 예문에서의 ‘스스로 얹어 지극하다고 믿고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 일 것이다. 이 때 주희는 “그 뜻을 진실하게 하라”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는 공리의 결과가 기존의 규범과 다르게 나온 경우에도 역시 ‘기존 규범대로 행하라’는 뜻이다. 얹어 불완전한 경우에도 의식적인 노력으로 도덕적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얹과 실천은 각각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참된 얹과 자연스러운 실천’, ‘불완전한 얹과 부자연스러운 실천’이다. 얹이 참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천되지만, 불완전한 경우라면 노력을 통해서라도 실천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연스러운 실천이다. 선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과 ‘완전히 아는 것’ 사이 어디엔가 위치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실천은 완전히 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부자연스러움의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 향상일 것이다. 한편,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실천은 단지 실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얹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어떤 것을 알면서도 실천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면, 얹이 얹은 것이다. 이미 그 내용을 몸소 실천했다면, 얹은 지난날과 다르게 더욱 밝아진다.<sup>22)</sup>

얹이 얹은 상태에서 하는 실천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얹은 더욱 밝아진다. 아마도 주희는 효제 충신의 정신을 담은 일상적인 규범을 실천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효제 충신의 정신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이치를 탐구하고 한편으로는 실천하면 얹은 더욱 깊어지고, 얹이 깊어지면 실천은 더욱 자연스러워진다.

22) 『주자어류』 9:2, 方其知之而行未及之, 則知尚淺. 既親歷其域, 則知之益明, 非前日之意味.

## 5.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소학과 대학을 각각 ‘타율적 윤리와 자율적 윤리, 함양과 궁리, 불완전한 앎과 부자연스러운 실천, 참된 앎과 자연스러운 실천으로 대비하여 파악하였다. 이렇게 보면 소학은 실천, 대학은 앎을 각각 강조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도덕적 배움의 여정에서 앎과 실천은 늘 함께 존재하며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천하면 앎이 밝아지고 알면 실천이 보다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므로 소학과 대학을 각각 실천과 앎을 강조한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컨대 대학에서의 ‘성의’는 ‘앎이 완전하여 뜻이 진실해지는 것’과 ‘앎이 불완전하더라도 의식적 노력을 통하여 규범을 실천해 내는 것’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즉, 대학이라고 해서 단지 앎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학과 대학을 ‘도덕성의 함양과 완성’라는 연속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타율적 윤리와 자율적 윤리’로 대비하여 파악한 것은 도덕적 발달과 완성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선악에 대하여 전혀 모르지도 않으며 도덕적으로 완성되었다고도 할 수 없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행위는 어느 정도는 타율적이고 또 어느 정도는 자율적이다. 도덕적 발달이란 타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자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여나가는 것, 즉 자율적 윤리로 전환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소학에서 익힌 기존 규범이 자신의 선한 본성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은 기존 규범이며, 이에 어긋난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다시 규범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실천 속에서 다시 참된 앎

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기존의 규범과 자신의 본성이 일치함을 깨닫게 된다. 이를 도덕적 주체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四書集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四書或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99.  
진래 지음/이종란 옮김,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2009.  
이상돈, 「주희의 수양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안은수, 「주자학 교육이론의 근간과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24』, 2005.

Abstract

## Xiaoxue(小學) and Daxue(大學), Heteronomous Ethics and Autonomous Ethics

Park Mira

Zhu—Xi said ‘practicing Xiaoxue during one’s early age to get back the lost heart—mind(放心) and to cultivate virtue later in Daxue forms one’s base of examining loyalty and achieving task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arning Xiaoxue. The main aim of studying in Daxue about how to ‘examine loyalty and achieve tasks’ is to accomplish one’s moral character. Therefore, generally it is believ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Xiaoxue and Daxue is ‘the cultivation and accomplishment of morality’.

I also agre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Xiaoxue and Daxue mentioned above. In this article, I focused on the idea that Zhu—Xi’s ‘method of moral cultivation in Xiaoxue’ is different from his ‘method of moral accomplishment in Daxue’. At Xiaoxue, Zhu—Xi expected moral development by paying attention to behaving according to the moral standards already exist(typically etiquette). On the other hand, at Daxue, he expected moral accomplishment by emphasizing the examination of the meaning and appropriateness of those moral standards practiced until then.

Xiaoxue and Daxue's study methods contrast with each other in terms of 'acceptance of existing moral standards'. In the case of small children, when they accept and practice those existing moral standards, it is not easy to refer them to as 'autonomous' even though they may not be under any physical or emotional compulsion. The reason is that the children did not really choose to do so. As a result, the process of encountering existing moral standards becomes necessary and only after this whole process is finished can we refer them to as 'autonomous'. 'Moral cultivation and accomplishment' in Xiaoxue and Daxue in the end means 'transition from heteronomous ethics to autonomous ethics' and ethical subjectivity establishes during this process.